

가채점 결과 기대보다 낮다면 수시 대학별 고사 집중해야

2021학년도 대입 전략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끝나면서 이제 대학 입시가 본격화됐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날 공개된 수능 영역별 정답을 확인, 가채점을 진행해 자신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현장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상의 대입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적에 따라 수시 논술·면접 고사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전략 수립의 핵심은 가채점=수능 이후 당장 4일부터 수시모집 전형이 시작된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수능 후에도 숨 돌릴 틈 없이 논술시험과 면접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채점 결과에 따라 수시와 정시 선택이 갈리게 된다. 가채점은

점수 잘 나왔다면 정시 적극 공략 대학별 반영 유형 유·불리 분석을 광주교육청 10·30일 대입 설명회

최대한 보수적으로, 꼼꼼히 하는 게 좋다. 우선 수능 가채점은 시험 당일 신속히 끝내야 한다. 수험포 뒷면 등에 자신이 기재한 답을 적어서 나온 경우 큰 문제는 없다. 기억에 의존해 채점해야 한다면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채점해야 한다. 만약 어떤 답을 기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채점해야 입시전략 수립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오는 23일 배부되는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되지만 원점수는 나오지 않는다. 대학도 수능 성적을 활용할 때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활용해 변환 성적을 산출한다.

수험생은 과목별 원점수나 원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본인 성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점수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원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은 없다.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기대보다 낮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 대학별 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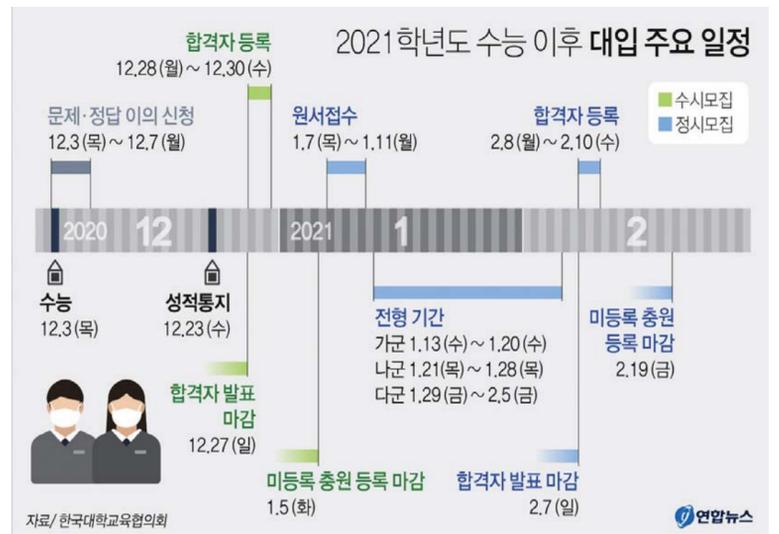
반대로 성적이 기대치를 웃도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 정시모집을 적극 공략하고 정시 합격 가능 대학에 수시를 지원했다면 대학별 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수능 반영 유형...유·불리 분석=수능 가채점을 했다면 대학별 수능 반영 유형에 따라 유·불리를 분석해야 한다. 대학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거나 일부 영역만 반영하기도 한다.

수능 점수 반영 방법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변환 표준점수 등으로 다양하다. 영역별 반영 비율, 특정 영역 가중치 부여 등 점수 산정 기준이 각각 다르다.

수험생은 대학별 수능 반영 유형과 기준에 맞춰 본인 성적을 다각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에 유리한 수능 반영 유형과 반영 방법 등도 우선 찾아내야 한다.

이후에는 지원에 유리한 대학을 찾아 정리하면



“코로나 감안 초고난도 문항 피하려 했다”

민찬홍 수능 출제위원장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초고난도 문항을 피하려고 최대한 애썼다.”

민찬홍 수능출제위원장(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은 수능 출제방향 브리핑을 갖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문제를 냈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준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준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올 6월·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 성적 분포 등에 있어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올해 수능이 특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

까 조심했고, 초고난도 문항을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수학영역은 수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행하고 적용하는 능력,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연계에 대해서는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영역별 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71.1% ▲수학가·나형 각각 70.0% ▲영어 73.3% ▲한국사 70.0% ▲사회탐구 70.0% ▲과학탐구 70.0% ▲직업탐구 70.0% ▲제2외국어·한문 70.0%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역별 출제 난이도 살펴보니

국어 9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40번 문항 어려웠을 듯

국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난도를 유지하되, 초고난도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6월 및 9월 모의평가와 같았으며, 난도는 9월 모의평가보다 쉬웠고 6월과 비슷했다.

화법과 작문에서는 기존의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 재작년 수능부터 꾸준히 등장한 화법과 작문의 세트형 문항이 출제되었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답화상향과 작문 유형이 등장했다.

문법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서형 문항이 출제됐으며 언중의 인식과 단어 구성방식을 묻는 현대 문법 두 문항이 연결되었다. 13번 문항의 경우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묻는 문항으로, 문고자하

는 지식은 낮설지 않았으나 문제 형태가 독특했다.

독서(비문학)의 경우 인문, 사회, 기술 영역에서 출제됐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 지문 15문항으로 구성됐다. 다만, 예년의 수능이 지문의 길이에 따라 문항수가 결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지문의 길이와 문항 수에 특별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문학영역은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갈래 복합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고전시가인 정철의 ‘사미인곡’, 신희의 시조 작품과 유본학의 고전수필이 갈래 복합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40번 문항이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영어 1등급 비율 높아질 듯...29·34번 ‘변별력’ 가질 것

영어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습량이 줄어든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EBS교재와의 연계율은 70% 이상으로 6·9월 모의평가와 같은 유형에서 7문항이 직접연계 됐으며 신유형은 출제되지 않았다. 듣기 문항 간접말하기 유형의 후반부 연속배열이 이번 수능에서도 유지됐으며 읽기 문항 순서도 모의평가와 동일하게 출제됐다.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은 2020대입 수능 영어영역 7.4%보다 높고 금년 6월 모의평가 8.73%

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정도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인 29번 어법 문항과 34번 비연계 빈칸 유형 문항이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지문의 문장구조는 복잡하지 않지만 어휘 수준은 평이하지 않아 채점 난도가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어렵게 출제되었던 간접쓰기에 해당하는 순서파악, 문장삽입 유형은 다소 쉽게 출제됐다. 6·9월 모의평가에서 듣기문항이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어 이번 수능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유지한다면 등급간 비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 2~3점짜리 난도 오르고 ‘합답형’ 3점짜리 쉽게 출제

수학 가형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나형은 작년보다 약간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됐다.

수학 가형의 경우 작년에 출제됐던 ‘기하’는 올해 범위에서 빠지게 돼 도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에게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기존에 쉽게 풀었던 2~3점짜리 문제 난도가 올라 중하위권 학생은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봤다.

해마다 출제됐던 등비급수 활용문제와 삼각함수 극한 활용은 이번에도 출제됐지만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됐으며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합답형 문항이 3점짜리 문제로 쉽게 출제된 특징이 있었다고 분석

했다.

수학 나형의 경우 작년 수능과 비교해 ‘수열의 극한’이 가형으로 넘어가고 시험범위가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었다. 또 수학 가형과 공통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 중 3개 문항의 배점이 3점에서 4점으로 바뀌 출제됐다. 4점 짜리 문제로 출제됐던 중복조합 문제가 3점짜리로 출제되는 등의 특징도 보였다.

수학 나형의 경우 상위권의 등급을 가를만한 문제로 수열 21번, 미적분 20·30번이 꼽혔다. 21번은 작년 수능과 유사한 문제가 반복 출제됐으므로 차분히 계산을 반복한다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 로그아웃 친구사랑 로그인

우리가 보낸 따뜻한 시선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광주일보